

불자의 채식은 '의무' 아닌 '선택'



불자는 반드시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미국의 여성전문사이트 벨라온라인의 편집장인 제넷 스티링 보살님이 지난 4월초 답변 형식으로 게재한 글을 소개한다. 한국불교와 정서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인의 입장에서 진솔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우리 불자들은 하나같이 어느 생물이 해쳐선 안 된다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불자라면 이미 채식주의자거나, 또는 이내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스님들과 많은 불자들이 채식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불자들이 무조건 고기는 먹지 말고 푸성귀만 먹어야 한다고 우기는 건 현실을 외면한 아둔함일 수도 있어요. 저는 신체조건상 땅콩, 호두, 아몬드 등 견과류를 전혀 소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채식만으로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가 어렵고 건강도 지킬 수가 없어요. 잘 아시듯, 고기든 푸성귀든 모두 소중한 먹을거리죠.

어떤 이들은 모든 생물이 우리 인간처럼 당당히 살을 누릴 자격이 있으므로 절대 해쳐선 안 된다고 해요.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물이 그러하듯, 풀이나 뿌리, 열매 등 식물 역시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먹을 수도 있도록 그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이처럼 우리에게 내어준 동물과 식물에 대해 우리는 늘 경건한 감사의 마음을 지녀야 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거룩한 희생으로부터 얻어 받은 우리의 건강과 풍요를 또 다른 생명체들에게 두루 나눠 주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 나눔과 보살핌의 마음을 지닌다면 그 누가 육식이 오제(五戒)를 거스르는 행위라



채식과 육식이라는 분별적 사고에 대해 미국인 제넷 스티링은 보다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한다. 사진은 한국의 사찰음식재료.

고 단언하겠어요? 소승불교에선 스님은 자신을 위해 도살되는 동물의 소리를 듣거나 모습을 봐서도 안 된다고 가르치죠. 그건 그분들에게 몹시 가혹한 카르마가 아닐 수 없어요. 기원전 1세기 경 팔리어로 쓰인 소승장경은 붓다께서도 사람들이 만들어 바친 육류를 더러워 싫어하셨다고 전하죠. 그런데 팔리어 대승경전에는 그런 사실이 나오질 않아요. 제가 들었던 소승보다는 대승불자 중에 채식주의자가 더 많더군요. 하지만 그 어는 쪽이든 불교에선 채식은 강요하지 않아요. 그건 사람마다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 아닐까요?

소승, 대승과 더불어 불교의 세 개의 큰 줄기기도 알려진 금강승(金剛乘), 곧 티베트불교는 희생의례를 포함해서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곳의 법우들은 채식의 강박감에서 훨씬 자유로워요. 아잔 자가로 스님께서는 '불교와 채식주의'라는 주제로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채식의 여부보다 더 우려되는 건 지나친 고정관념이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죠. "어떠한 사안이란 그

에 대해 극심한 고정관념의 틀을 짜고 우리 스스로 그 속에 갇히는 건 매우 염려스럽다.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보다는 더욱 굳어지게 한다. 그리고 이처럼 폐쇄되고 경직된 사고는 일반사물에 대한 과잉반응으로 이어진다. 즉, 내 뜻에 순순히 동의하지 않으면 내 뜻을 거스르는 적으로 여기는 바와 같다." 참 옳은 말씀이죠? 그럼 마저 들어보세요. "무조건 동물을 하지 않으면 나의 적이라 여기는 것이 바로 흑백논리다. 그건 이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극단적 사고로 치달는다. 이는 우리 불자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고 경계해야 할 그릇된 심성이다."

일찍이 붓다세존께서는 그 어떠한 견해와 관점에도 매달리지 말라 이르셨다. 모든 번뇌와 고통은 그러한 집착에서 비롯한다." 이제 끝으로 우리 불자들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채식을 하시든 안 하시든 뜻대로 하세요. 그건 사람마다 알아서 선택할 일이니 옳고 그른 게 따로 없겠지요."

출처: Buddhism and Vegetarianism
번역: 성휴 스님

"스타의 행동은 곧 전법공덕"

월드 스타 불심도 스타 스티븐 시걸



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곧 전법공덕이다.

배우를 그만 두고 출가까지 생각하는 '할리우드 대법사' 리처드 기어는 영화 '죽어야 사는 여자'에 출연했던 여배우 골디 혼 보살과 함께 탈라이 라마가 있는 인도의 다람살라에서 개최된 '과학과 현대가치체계'란 불교적 주제의 국제세미나에도 참석하는 등 지극한 불심을 보인다.

여배우 샤론 스톤 보살은 자신의 저택을 불화와 불상으로 장엄하여 평안함을 구하며, 올랜도 블룸 거사는 자신의 빌라에 모신 불단 앞에서 매일 명상과 염불을 한다. 레오 나르도 디카프리오, 키아누 리브스, 텔레비전 드라마 '텔러스'의 배우 패트릭 더피, 그리고 스티븐 시걸에 못잖은 액션스타인 장 클로드 반담과 제트 리(李連杰) 거사 등도 불교도반들이다. 그런가 하면 그룹 '비스티 보이즈'는 불교의 고매한 이상을 찬양하는 보살의 서약(Bodhisattva Vow)이란 랩 음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티나 터너 보살, 제니퍼 로페스 보살을 비롯해 제시카 랭, 조디 포스터, 산드라 불록, 수잔 서랜든 여류 메가 스타들도 불연을 맺었으나 더 이상 일일이 나열하진 않겠다. 우리 불자들은 자신의 종교를 막판떨이 장터에 버려두고 소란을 피우는 따위의 조조함을 지날 까닭이 없다. 다만 할리우드의 메가 스타들이 어느 미개인의 땅에선 '악마의 저주'라 일컫는 불교에 왜 다가서는지? 명예와 재산 등 부러울 게 없는 그들이 왜 이른바 '불신지옥행 이교도'가 되어 가는지? 그들의 답답하고 고운 불연을 한 올 한 올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 할리우드 도반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무조건적이며 무한대의 자비공덕을 소상히 알리고 싶다. '나의 마음이 곧 나의 절미여, 나의 자비가 곧 나의 종교'임을 나 또한 그렇게 믿기 때문이다.

성휴 스님

"할리우드 유명 불자(Hollywood Buddhist Biggies)라 불리는 거물급 인사들이 특히 최근 들어 줄을 잇는 까닭이 도대체 뭘까요?" 여기저기서 자주 들어오는 똑같은 질문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은 똑같을 수 없다.

그들의 성장배경과 교육 정도, 그리고 품성과 재능 등이 손가락의 지문처럼 각각 다름뿐더러, 불연(佛緣)으로 이어진 카르마의 실마리도 형형색색 다를 터이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모든 할리우드 스타들 역시 어느 중생처럼 내면에 불성을 이미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자신의 불성을 찾게 된 계기가 다를 뿐이다. 합기도 등 각종 동양무술의 달인인 액션스타 스티븐 시걸은 16세 때 일본으로 떠날 즈음에 거의 불자였고, 영화 '쿤둔'의 스폰서지 감독은 작품에 몰두하던 중 '물질'을 넘어선 불교의 정신세계'에 감화되어 뒤늦게 불문에 들어갔다.

영화 '리틀 부다'의 베르톨루치 감독은 기독교적 독선과 물질문명의 한계를 불교철학을 통해 극복했다고 술회했다. 할리우드의 대표적 영화 전법사인 조지 루커스 감독과 올리버 스톤 감독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처럼 어떤 이는 번뇌의 먼지를 털어내고서 여태 자신 속에 감춰져 온 불성을 찾아내고, 또 다른 이는 탐욕과 망상의 진창 속을 허우적대다 어느 순간 자신이 붓다임(Buddhahood)을 문득 깨우치기도 한다. 우리는 어떤 방편과 과정으로든 제도(濟度)가 되어진 그들을 '길벗', 불가에서 쓰는 가장 아름다운 말 중 하나인 도반(道伴)이라 부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탐진치 삼독이 온몸에 퍼지도록 미망에 사로잡힌 안타까운 무명의 중생도 있다.

그들 또한 길벗들이 등에 업고 가야 할 '어려운 벗들'이다. 여러 갈래의 길을 따로 걷던 할리우드 스타들이 이제 하나를 한길로 들어서길 벗이 되어 가는바, 그들이 하는 일 또한 하나다. 즉, 어려운 벗들을 옮기고 고운 길로 함께 데려가는 중생제도다. 영화감독, 배우, 가수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듯 그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전하는 대중전법의 파장 또한 강력하다. 그들

ABC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If anything goes wrong, shout Buddha!"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는 "부처님!"을 외쳐라



A rookie paratrooper 'Pumpkin' was deadly scared to jump. His instructor 'Asura' assured him, "If anything goes wrong, shout aloud, Buddha! Oh, my Lord Buddha" and you will get saved, got it?" "Yes, sir" And 'Pumpkin' jumped out, but got so scared and forgot to pull his rip-cord. So he yelled out, "Buddha! Oh, my Lord Buddha!" And a hand came out and saved him. Safely dropped on the ground, he smiled, "Oh, thanks God!" Having heard this later, Asura chuckled, "Hehe, good enough! You got saved anyway."

고공낙하훈련의 신병 '호박'이 겁을 잔뜩 먹고 뭉뚱이내리자 '아수라' 조교가 안심을 시켰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는 '부처님, 아이고, 부처님!' 이라고 함꼐 외쳐라 그러면 안 죽는다, 알겠나?" "네" 호박이 뛰어내리긴 했는데 너무 무서워 낙하산 방출 끈을 잡아당기지 못한채 마구 소리를 질렀다. "부처님, 아이고, 부처님!" 그러자 어디선가 손이 나타나 그를 구해줬다. 안전하게 땅에 내려온 호박이 씩 웃었다. "오, 주여, 감사하네요!" 나중에 그 얘길 들은 아수라조교가 깔깔했다. "하하, 거 좋지! 어땠거나 살아났잖아!"

번역: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中 "티베트독립군 자살테러 모의" 발표

티베트 정부 "사실무근" 반박

4월 1일 중국공안부장 우허핑은 "티베트독립군"이 티베트분리 독립투쟁의 일환으로 자살테러를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동 자살공격대가 유혈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극렬폭력집단으로 티베트당명정부가 베이징 올림픽과 패럴림픽 배후조종하는 '티베트인민 봉기운동'의 일환이라 주장, 최근 공안당국이 수백 입수한 총기 176정, 폭약 3만

5000 kg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3월 10일부터 티베트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여 티베트인 등 14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소사태도 '달라이 라마 도당의 사주'라는 그의 발표에 대해 티베트 망명정부의 대변인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 즉각 반박했다. 이어 4월 12일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은 후주의 케빈 러드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현 티베트 사태는 종교와 인권이 아니라 통일된 주권국가의 분열위기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출처: BBC, 신화통신, NBC

영 사이먼 거사 런던마라톤 출전

런던 불교센터는 4월 13일 동 센터의 시켈러와 사이먼 거사가 '숨 쉬는 공간 프로젝트' 및 정신치료 자선단체인 '마인드'의 설립 기금을 마련하고자 런던 마라톤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사이먼 거사는 수년간 독거정진을 할 때 40세 이전에 마라톤을 뛰려했던 꿈을 이루게 됐다며 기뻐했다. "우리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우를 위한 휴게실, 독서실, 식당 등을 갖춘 건강복지센터도 런던 불교센터 설립 30주년인 금년 말까지 확장 완공할 겁니다."

출처: LBN

구화산 지장도량, 보타산 관음도량에서

기도의 원만성취!

5박 6일의 일정으로 최저의 경비로!! 가장 큰 기도성취를 이루고자 목탁 큰스님과 함께 합니다.

- 인천 → 남경 → 구화산 → 황산 → 항주 → 보타산 → 상해 → 인천

▶ 행사 특별경비 : 99만원 ▶ 일시 : 5월 17일 출발 선착순 여분 9명



최상의 불교전문 여행사 에스 굿투어 02-365-7747. 011-9039-1239



에스 굿투어는 미안함을 비롯하여 중국, 캄보디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태국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입니다.

세계 어느 곳든 저의 부모님을 모시듯이 효도하겠습니다.